

목 차

요 약

I. 연구 배경 및 목적

- 2 | 1. 연구 배경
- 4 | 2. 연구 목적과 추진방향

II. 주요 국가의 거시경제 현황과 원자재 요인

- 5 | 1. 러시아: 제한적 반등과 한계
- 9 | 2. 카자흐스탄: 경기개선 기대와 정부정책 지속
- 12 | 3. 우즈베키스탄: 성장둔화 속 새로운 길 모색
- 17 | 4. 유라시아 경기영향 주요 요인: 원자재

III. 경기회복의 긍정적 요인

- 23 | 1. 유라시아 외부요인
- 29 | 2. 유라시아 내부요인

IV. 현지기업 체감경기와 시사점

- 37 | 1. 현지기업 체감경기: 기업인터뷰를 중심으로
- 42 | 2. 기회요인과 시사점

요약

□ 2017년 러시아 등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현황과 원자재 요인

- 2014-2016년 유라시아 국가들의 경기는 하강국면을 보였으나 2017년부터 지표상 경기개선이 본격화되고 있음
 - * 러시아 중앙은행은 2017년 GDP성장을 1.0-1.5%로 예상하고 있으며 루블화도 비교적 안정추세
 -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성장률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후자의 경우 인플레이 우려
-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요국 경기에 우호적인 환경조성
 - * World Bank, EIA 등은 향후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자원의존적인 유라시아 국가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경기회복의 긍정적 영향 요인

- 유라시아 지역 외부요인으로 ‘남북 국제철도’ 운행 본격화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 중앙아시아 지역과 이란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남북 국제철도(North-South Transnational Railway)’는 내륙국이 많은 유라시아 지역의 대외 연결성을 확장하는 역할 가능
 - *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투자확대는 지역 인프라 확대와 경기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평가
- 내부적으로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외연확대 또는 심화와 카샤간 유전 증산, 아스타나 엑스포 개최 등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
 - * 러시아 주도의 EAEU는 공고화 및 외연확대를 추진 중이며 카자흐스탄의 카샤간(Kashagan) 유전 생산본격화와 아스타나(Astana) 엑스포 개최도 지역 내 중요한 경제적 요인

□ 현지 진출기업 현황과 시사점

- 지표와 달리 진출기업의 체감 경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불황지속으로 중국산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등 시장 양극화 지속
 - * 도소매업 및 소비자 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으며 저가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 기업은 ▲경기개선에 대한 지나친 기대보다는 산업별 시장현황 분석, ▲저가 제품군 타깃, ▲경기회복 속도가 비교적 빠른 카자흐스탄 우선 협력 등을 고려해야 함.
 - * 불황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등 미용과 헬스케어 분야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I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유라시아 주요 국가들은 2017년부터 지표상 경기 개선세 시현

○ 지난 2014년 서방의 對러시아 경제제재 및 국제원자재 가격하락으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주요국 경기는 하강국면 지속

-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및 원유를 중심으로 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락으로 2014년 중반이후 유라시아 국가 전반의 경제가 하강국면 진입

*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은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전망 하락과 셰일오일 등의 대체에너지 생산 증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

-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원자재 보유국은 자원가격 하락과 러시아 경기부진 영향의 이중고를, 자원 비보유 소국은 러시아 시장 의존에 따른 필연적인 경기침체를 경험

* 대부분의 유라시아 국가들이 2014년 대비 2015년 경제성장률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유라시아 전체적으로는 2014년 1.1% 성장에서 2015년에는 -2.8%의 성장률을 기록¹⁾

○ 국제원유가격이 2016년 저점을 보이고 상승추세를 나타내자 유라시아 국가들의 경기상황이 동반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지표상 시장상황 개선

- 러시아의 2017년 경제성장률이 역성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원자재 가격의 안정에 따라 유라시아 국가들의 경기상황 개선

- 러시아 등 주요국의 경기 개선에 따라 수년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던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Subdued Demand - Symptoms and Remedies," Oct. 2016, p. 232.

한국과 이들 국가의 교역이 살아나고 있으며 지표상으로는 장기 침체기를 벗어나는 징후들이 부각

〈 표 1 〉 유라시아 주요국과 한국의 교역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러시아	10,129,249 (-9.1)	15,669,238 (36.3)	4,685,732 (-53.7)	11,308,287 (-27.8)
카자흐스탄	906,958 (-15.6)	560,771 (125.1)	454,475 (-49.9)	305,027 (-45.6)
우즈베키스탄	2,032,460 (3.3)	27,361 (-48.5)	1,284,047 (-36.8)	16,138 (-41.0)
구분	2016년		2017년 8월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러시아	4,768,751 (1.8)	8,640,613 (-23.6)	4,869,759 (57.2)	7,467,764 (41.7)
카자흐스탄	364,129 (-19.9)	285,298 (-6.5)	364,534 (63.5)	490,720 (297.1)
우즈베키스탄	927,671 (-27.8)	20,777 (28.7)	788,172 (47.7)	13,264 (7.7)

* 주: 한국 기준이며 괄호 안은 전년 대비, 2017년은 8월까지 전년 동월대비 기준

* 자료: www.kita.net

- 한국과 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교역은 2015년 2015년~2016년 사이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유라시아 국가들의 경기침체에 기인

* 특히 2015년에 교역감소가 두드러졌으며 2016년부터 일부 회복기미 보임

- 2017년 8월까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과의 교역액이 전년 동월대비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단기 회복국면으로 진입

* 다만, 경기침체 이전인 2014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인지는 불확실

2

연구 목적과 추진방향

□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기회복 국면과 현황을 이해

○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경기회복 국면에 있는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상황과 전망 등을 분석

- 국제원자재 가격 회복을 기반으로 회복세에 있는 주요국들의 경제현황을 분석하여 거시적인 경제 환경을 이해하고 향후 전망을 도출
- 각 국가의 거시 경제 환경에서 주요 이슈가 되는 대내·외 요인들을 이끌어내어 각 이슈별 주요 사안 및 영향을 분석
 - * 주요 국가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과 국가별 특수성에 기인한 요인들을 구분하여 사안별로 분석

□ 현지 조사를 통해 주요 산업별 경기 체감도 분석

○ 러시아 현지조사로 주요 산업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업실태 조사

- 러시아 현지기업 및 진출 한국기업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각 산업별 시장에서 느끼는 경기 체감도 점검
 - * 러시아를 중심으로 각 산업에 대한 주요 기업 현지 심층 인터뷰
- 특히 현지진출 한국기업이 체감하는 경기 개선현황에 대한 조사로 우리기업의 산업현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대응방안 모색

II 주요 국가의 거시경제 현황과 원자재 요인

1 러시아: 제한적 반등과 한계

- 2016년 경기저점을 기록한 이래 2017년 미약한 반등기조 유지
- 러시아는 2017년 원자재 가격 회복에 따라 지표상 경기 개선세가 시현되고 있으며 2017년 연중 플러스(+) 성장 기대
 - 국내총생산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2014-2016년 마이너스를 보였으나 2017년부터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이 예상되며 2020년까지 미약하나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표 2 〉 러시아 주요 경제지표: 2016-2020년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GDP	-0.2	0.9	1.3	1.5	1.7
민간소비	-5.0	1.3	2.6	2.5	2.4
정부지출	-0.3	-0.7	-0.5	-0.8	0.4
고정투자	-1.4	0.5	1.0	1.8	2.3
수출증감	2.3	1.1	1.4	1.2	1.0
수입증감	-5.0	3.4	3.5	3.2	3.3
국내수요	-4.0	1.2	1.6	1.9	2.2
농업생산	3.6	2.2	1.5	1.7	1.7
산업생산	-0.1	1.0	1.1	1.3	1.5
서비스	-0.7	0.8	1.4	1.6	1.8

* 자료: Economic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March, 2017

- 경기침체에 따라 감소세를 보였던 민간소비 및 고정투자도 점차 증가하여 2016년 -5.0%에 이르렀던 민간소비가 개선되고 고정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경기회복에 따라 수입은 일정부분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수출성장은 당분간 1%대의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재정지출 또한 당분간 축소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
- *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것은 해당기간 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원자재 이외의 다른 산업 부문의 수출증가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예측에 기반하고 있으며 수입대체화전략의 지속에 따른 중간재와 장비·기계류 수입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농업, 산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별 전망도 대체로 2020년까지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러시아 중앙은행의 경기전망과 정부정책

- 서구기관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중앙은행도 2016년을 저점으로 향후 경기 개선세가 시현될 것으로 예상
- 국내총생산은 2016년 저점을 기록한 이후 2017-2018년에는 1%대 초반에서, 2019년에는 2%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

〈 표 3 〉 러시아 중앙은행 경기전망: 2016-2019년

구분	2016	2017	2018	2019
GDP(%)	-0.2	1.0-1.5	1.0-1.5	1.5-2.0
인플레이션(%)	5.4	4.0	4.0	4.0
소비(%)	-3.8	1.5-2.0	1.7-2.2	1.8-2.3
원유가격(우랄산, 배럴, USD)	42	50	40	40

* 자료: Central Bank of Russia, Monetary Policy Report No.1, March, 2017.

- 국내 총생산이 완만한 성장을 하는 데는 2017년부터 소비가 플러스로 돌아서고 원유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데 기반
 - *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투자증가는 2017년 1-1.5%에 그칠 것이나 확대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
- 우랄산 원유가격은 보통 원유 3대 유종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데, 2017년에는 평균 5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이나 2018-2019년대에는 평균 40달러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러시아 중앙은행은 중·단기 인플레이션이 4% 정도로 안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2014-2015년의 10%대 인플레이션에 비해 안정 기대
- 인플레이션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루블화 가치가 2016년 초에 바닥을 형성한 뒤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
 - 달러화 대비 루블화 가치는 2016년 70루블 중반까지 하락했으나 국제유가의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2017년에는 50루블 중반까지 상승하는 등 물가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표 4 〉 러시아 루블화 환율변동

시기	'16.11	'16.12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환율	68.84	63.81	59.96	58.39	58.10	56.43	57.17	57.82	59.67	59.65

* 주: 미국 달러화대비 월 평균 루블화 환율

* 자료: Central Bank of Russia, Basic Derived Indicators of Ruble's Exchange Rate Dynamics

- 2016년 중순부터 물가가 안정되면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도 플러스로 전환되었는데, 2016년 2분기 전년 동기대비 0.5% 성장에서 1.2%(3분기) →

1.8%(4분기)로 임금상승 지속

- 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2016년 재정 부족분을 '준비기금(Reserve Fund)'에서 지원받았으며 그 금액은 약 2조 1369억 루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2017년은 재정여건 개선기대
- * 2016년 정부의 재정부족분의 약 72% 정도는 준비기금에서, 나머지는 투자 및 국영기업 매각자금으로 보완

< 러시아 정부의 로스네프트(Rosneft)지분 매각 >

-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16년 12월 국영석유기업인 로스네프트의 지분을 매각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민영화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딜을 성사
 - 러시아 정부는 로스네프트의 지분 19.5%를 스위스 자원개발기업인 글렌코어(Glencore)사와 카타르 국부펀드 컨소시엄에 약 113억 달러에 매각
 - 러시아 정부는 20-30여개 서구기업들과 매각협상을 추진해왔고 저유가 장기화로 매각 예상가격이 기대치를 밑돌게 되자 매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국제유가 반등으로 매각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됨.
- 러시아 정부는 지분 매각을 통해 정부재정적자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향후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에서 추가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
 - 지분매각 수입으로 러시아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를 일부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자산의 민영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지분매각 이후에도 과반 이상의 지분은 아직 러시아 정부가 소유하고 있어 완전한 민영화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주요기업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통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2 카자흐스탄: 경기개선 기대와 정부정책 지속

□ 2017년 경기개선 추이 확대

- 2016년 국내총생산은 성장세로 전환되었으며 2017년 이후 연간 2% 대의 성장이 2020년까지 지속될 전망
 - 국제유가 하락 및 러시아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은 2015년 저점을 기록하였으나 2016년 미약한 개선세를 보였고 2017년 이후 성장세가 점차 확대 예상

〈 표 5 〉 카자흐스탄 주요 경제지표: 2016-2020년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GDP	1.3	2.1	2.1	2.5	3.0
민간소비	1.1	1.6	2.2	3.1	2.7
정부지출	2.0	0.5	1.0	0.5	1.0
고정투자	4.0	4.0	4.0	4.1	5.0
수출증감	-4.3	3.1	1.6	2.7	2.9
수입증감	-2.7	4.9	5.3	4.8	4.1
국내수요	-2.3	2.3	2.8	3.2	3.3
농업생산	5.5	0.6	2.8	3.0	2.8
산업생산	1.3	2.9	2.1	1.9	4.0
서비스	0.8	1.8	2.1	2.8	2.5

* 자료: Economic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March, 2017

-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국제원자재 가격의 점진적인 상승에 따라 카자흐스탄의 경기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다만, 2000년대 초·중반의 경기호황기 당시 연간 7~10%의 성장률을 보였던

전례에는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그동안 카자흐스탄의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었고, 원자재 가격이 과거와 같은 고공행진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에 기인

- 민간소비는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지출도 재정상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낮은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예측
- 다만, 고정투자는 연간 4%를 상회하며 2020년경에는 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의 연계사업 등 각종 물류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
- 농업과 산업, 서비스 분야도 2020년까지는 업황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

□ 정부정책의 주요 방향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31일 對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향후 정부의 정책운용 방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²⁾
 - * 정부는 향후 정책운용의 목표를 크게 5가지 우선순위로 구분하고 각 우선순위에 따르는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음.
- 금년 발표한 정부의 정책운용방안은 기존에 카자흐스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다양한 정부주도의 경제정책 및 운용방안을 집대성했을 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정책방향을 비교적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
- 첫 번째 우선순위는 경제 현대화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크게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체질변화, ▲전통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로 요약됨.

2) The President of Kazakhstan Nursultan Nazarbayev's Address to the Nation of Kazakhstan, Jan. 31, 2017, (<http://www.akorda.kz>, 검색일: 2017년 7월 10일)

- 신산업 육성은 주로 3D 프린팅, 온라인 상거래, 모바일 banking 등 IT 산업과 관련된 분야를 ‘나자르바예프 대학교’ 내의 혁신 시설이나 ‘알라타우(Alatau)’경제특구에 대한 기업유치를 통해 추진
- 원유, 천연가스, 광물 등의 전통산업 부문은 여전히 카자흐스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중국 등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시설을 현대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
 - * 본 담화에서는 특히 농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주요 목표 중의 하나로 설정
- 두 번째 우선순위는 비즈니스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민간부문의 육성을 통해 공공부문 비중을 OECD 수준인 GDP대비 15% 수준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 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사유화(privatization) 프로그램을 촉진하여 민간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 그러나 동시에 정부는 공공부문의 중요성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삼룩-카지나(Samruk-Kazyna)’나 ‘바이테렉(Baiterek)’을 통한 주요 전략자산과 기업의 통제는 지속할 것임을 밝힘.
 - * 양 기관은 국영기업을 통제하는 정부의 국영지주회사임.
- 세 번째 우선순위는 거시경제의 안정화로 금융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기반으로 연간 약 3-4%의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함.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의 국영기업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는 재정집행과 국부펀드의 효율성을 강화함.
- 네 번째 우선순위는 교육시스템 개선을 기반으로 한 인적자원개선과 공공의료보험제도 도입 등의 헬스케어 시스템의 재편
-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선순위는 제도개혁과 반부패 정책 강화를 통한 전반적인 사업 환경 개선

○ 정부정책의 함의

- 금년 발표한 정부정책은 큰 틀에서 카자흐스탄 정부의 기존 ‘카자흐스탄 2050 전략(Kazakhstan 2050)’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
 - * 해당 전략은 2050년까지 카자흐스탄의 포괄적인 사회·경제발전전략을 담고 있음.
- 정부정책의 핵심은 ▲경제전반의 생산성 향상, ▲자원부문 이외의 신산업 부문 강화, ▲투자환경 개선과 정부역할 축소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그러나 카자흐스탄 경제의 원자재 의존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산업다각화정책으로의 전환이 사실상 단기적으로 어렵다고 볼 때, 경기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3 우즈베키스탄: 성장둔화 속 새로운 길 모색

□ 경제성장 둔화: 저성장 시대의 도래

- 2016년 이후 경제성장은 지속될 전망이지만 성장률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 우즈베키스탄은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유라시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해 온 국가로 대외경제 여건에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아 견조한 성장흐름을 보여 왔음.
 - * 시장경제 도입 초기부터 계속된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정책은 전임 카리모프 대통령 정부의 주요 거시경제운용 방안으로 2016년 12월 선출된 신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도 단기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최근의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과 러시아 노동이주의 송금액 감소 등 외부변수의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2016년 경제성장률은 201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3.5%에 그침.

- 2017년은 글로벌 환경의 개선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4.5%로 소폭 상향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8-2020년 기간에도 5% 대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과거의 8~9%의 성장은 난항

〈 표 6 〉 우즈베키스탄 주요 경제지표: 2016-2020년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GDP	3.5	4.5	4.5	5.1	5.5
인플레이션	12.0	18.0	15.0	12.5	11.0
농업생산	5.5	5.2	5.0	6.0	5.5
산업생산	4.0	4.5	4.5	5.0	5.5
서비스	3.0	5.5	6.5	6.0	5.0

* 자료: Economic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March, 2017

-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다양한 산업의 육성계획을 추진해 온 결과, 일부 산업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조업 등에서 다른 유라시아 국가에 비해 양호한 성과를 기대

- * 2016년 러시아의 산업생산은 역성장을 했음에도 우즈베키스탄의 산업생산은 4% 성장하였고, 향후 2020년까지 꾸준한 성장이 예상

-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펴고 있으나 러시아 및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이 지속되고 있어 양국 경기침체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리스크 상존

- * 특히, 최근에는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가 확대되어 중국경기에 따른 리스크 요인이 큰 것으로 판단

- 향후 경제성장은 지속될 것이나 현지화인 ‘솜(som)’화 가치의 지속적인

평가절하와 이로 인한 물가 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우즈베키스탄은 정부의 공식환율(Central Bank of Uzbekistan exchange rate)과 시장 환율(market exchange rate)의 이중구조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으나 2017년 9월 단일환율 제도로 변경

* 이중 환율시스템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공식환율과 시장환율 괴리율은 지속적으로 확대

〈 2000년대 우즈벡 통화 가치 변화 〉

- 우즈베키스탄은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은 일정기간을 제외하고 큰 차이를 보여 왔으며 전반적인 통화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

- ‘99~’00년 사이 환율차이는 308%에 이르렀으나 이후 축소되었고 ‘09년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는 추세

〈 표 〉 우즈베키스탄 정부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 1999-2012년

(단위: som/USD, %)

구분	99/00	01/02	03/04	05/06	07/08	09/10	11/12
공식환율	168	635	992	1185	1293	1573	1850
시장환율	684	903	999	1175	1344	2101	2730
시장환율 프리미엄	308	173	1	-1	4	37	48

* 자료: Stephen MacDonald, “Economic Policy and Cotton in Uzbekistan,” USDA, A Report from the Economic Research Service, October, 2012, p. 8.

- 2003년 10월부터 기존의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이 단일 환율로 통합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외국환 통화와 관련하여 해당 국가내의 차별적 정책을 폐지하도록 하는 국제적 합의조항 8항(Article VIII)을 우즈베키스탄 정부에게 권고하면서 이나, 이후 다시 분리

- 2017년 9월 2일 대통령령으로 환전, 송금 등 국제거래 자유화 정책

의 전격적인 도입과 이중환율제도 폐지

- * 제도 변경 첫날인 9월 5일 정부고시 환율은 1달러당 8,100숨을 기록하여 이전 정부고시 환율의 2배가 넘는 하락
- 우즈벡 숨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16년의 인플레이션은 1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7년에는 18.0%에 달하고 이후 하락하더라도 두자릿 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우즈베키스탄 신정부의 경제정책: 안정 속 점진적 변화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기존 카리모프 정부의 정책을 대체로 계승하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에 따라 점진적인 변화 추진 예상
- 2016년 12월 약 88%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카리모프 전임 대통령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면서 정국안정모색
- 유럽연합 의회는 전임 카리모프 대통령의 사망 후 내놓은 논평에서 미르지요예프가 후계자가 될 것임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신정부 시대에도 우즈베키스탄의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³⁾이라고 예측하였음.
- 취임이후 기존 우즈베키스탄의 정책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모색하지 않고 있으며 취임 초기에는 시장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기업인들과의 만남 등의 행보
- * 카리모프 전임 대통령의 5대 정책인 ▲경제우선, ▲국가 우선주의, ▲법치주

3) European Parliament, “Post-Karimov Uzbekistan: Business as Usual,” At a Glance, Nov. 2016.

의, ▲사회복지 강화, ▲점진적 개혁의 틀에서 정책집행

-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은 지속되고 있으며 다만, 이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취임 후 약 9개월 만에 단행된 외환자유화 조치는 향후 정부정책의 변화가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음.
- 親러시아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대외경제정책에서 러시아와 어떤 방식의 관계설정을 해 나갈 것인지 등 대외변수와 기타 국내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상존
 - 신임 대통령은 친러적인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어 대체로 중립적인 성향을 보였던 우즈베키스탄의 대외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 우즈베키스탄의 대외정책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사이 친러-친서방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대체로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국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세력을 강화하고 있는 이슬람 과격단체(IS)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영향이 있음.
 - *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다수의 테러에서 중앙아시아 출신 IS 가담자가 배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과거부터 과격이슬람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국내정치 안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2005년 안디잔(Andijan) 사태에서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과격분자에 대한 물리적인 진압이 서구에서 인권문제로 비화되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훼손된 사례가 있음.

4 유라시아 경기영향 주요 요인: 원자재

□ 유라시아 주요국의 원자재 의존

- 러시아는 전형적인 원자재 의존형 국가로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러시아 경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원자재 수출로 얻은 이익과 국내총생산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상관관계가 약 85%에 달하며 고정투자는 91%, 제조업은 92%에 이르는 연구결과를 보임.⁴⁾
 - 주요 원자재 중에서도 러시아의 원유 및 석유 제품, 천연가스 등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국제가격 하락 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표 7 〉 주요 원자재 세계시장에서 러시아 수출 비중

(단위: %)

구분	2001	2007	2014
원유	7.4	11.4	10.9
석유 제품	6.1	9.7	11.8
천연가스	19.8	18.8	14.6

* 자료: UN Comtrade (2016)

- 전세계 시장에서 원유의 비중은 2001년 7.4%에서 2014년 10.9%로 확대되었으며 석유제품의 경우도 같은 기간 6.1%에서 11.8%까지 증가
 - * 다만, 천연가스는 점유율이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
- 러시아 경제의 원자재 의존은 역설적으로 높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유지

4) Michael Bradshaw and Richard Conolly, "Russia's Natural Resources in the World Economy: history, review and reassessment,"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Vol. 57, Issue 6, 2016. pp. 700-726.

되는 기간에 수출금액이 늘어나면서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다각화의 가시적인 성과는 미진

- 카자흐스탄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자원의존적인 경제구조로 인해 국제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라 자국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 고착화
 - 카자흐스탄의 수출 구조에서도 다른 상품에 비해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데, 원자재 수출비중은 약 66%에 달하고 있음.
 - * 반면, 중간재와 소비재, 자본재 등의 수출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수출구조의 편중화 고착

〈 표 8 〉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입품 구분 및 비중: 2015년

구분	수출		수입	
	금액(mil. USD)	비중(%)	금액(mil.USD)	비중(%)
원자재	30,361	66.07	1,824	5.97
중간재	10,401	22.63	6,386	20.89
소비재	4,554	9.91	11,271	36.87
자본재	602	1.31	10,758	35.20

* 자료: World Bank, Kazakhstan at a Glance: Most Recent Values, 2016

- 이와는 대조적으로 수입은 대부분이 소비재(36.87%)와 자본재(35.20%)에서 발생하고 있어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의 편중성을 보여주고 있음.
- 향후 유가를 중심으로 한 원자재 가격의 안정적 상승, 세계 최대 유전 중 하나로 평가받는 카샤간(Kashagan)유전의 생산 확대 등과 맞물려 원자재 의존 구조를 단기간 내에 타파하기는 어려울 전망
 - * 카자흐스탄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투자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 국가 중 비교적 제조업이 발전한 국가이나 천연가스나 면화, 금 등의 수출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원의존국
 - 우즈베키스탄은 자동차 등의 제조업 기반이 다른 유라시아 국가에 비해 비교적 잘 발전되어 있고 저임금을 활용한 경공업 제품의 생산도 활발한 편
 - 하지만, 천연가스와 금 등의 원자재는 전통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아직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원자재 가격 동향과 추정

- 원유를 중심으로 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은 2016년을 저점으로 반등세를 보이면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급락이 없는 안정적인 양상
 - 유라시아 주요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천연자원인 원유의 국제가격이 2014년 중반 급락한 이후 2016년을 기점으로 상승하여 2017년까지 약 40~50달러 근방에서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 유가는 2016년 초반 배럴당 30달러 부근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

〈 표 9 〉 주요 원자재 가격 변화

구분	원유(3대 유종 평균, USD/배럴)	천연가스(유럽, USD/mmbtu)	면화(USD/kg)	구리(USD/mt)
2014	96.24	10.05	1.83	6863.40
2015	50.75	7.26	1.55	5510.46
2016	42.81	4.56	1.64	4867.90
2017.1	53.59	5.46	1.82	5754.56
2017.2	54.35	6.27	1.88	5940.91
2017.3	50.90	5.36	1.91	5824.63
2017.4	52.16	5.24	1.92	5683.90
2017.5	49.89	5.35	1.95	5599.56
2017.6	46.17	5.41	1.87	5719.76
2017.7	47.66	5.21	1.85	5985.12

* 자료: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 Aug. 2017.

- 최근 원유가격의 상승은 원유 최대수입국인 중국의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저유가 지속에 따른 미국 셰일오일 생산의 위축과 석유수출기구(OPEC)의 감산 등 공급 측면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
- 러시아 등 주요 유라시아 국가의 주요 수출품인 천연가스 가격은 2013~2014년에 비해 2016년 절반이하의 가격으로 폭락하였으나 2017년부터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품인 면화 가격은 2015~2016년 하락하여 바닥을 다진 뒤 kg 당 1달러 후반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구리 가격도 2016년 저점을 기록한 이후 2017년에는 1mt 당 5,000달러 후반으로 상승하고 있음.
- * 상기의 모든 원자재 가격이 2016년 저점을 기록한 이후 2017년에는 가격회복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유라시아국가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기대

- 많은 기관들은 향후 원자재 가격이 더 이상의 급락은 없을 것이며 대부분의 원자재는 단기간 내에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
 - * 많은 기관들은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락을 보이기보다는 일정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원유가격을 2017년 52달러, 2018년 55달러로 점진적인 가격상승 예상⁵⁾

〈 표 10 〉 2017-2018년 원유가격 예상추이(WTI 기준)

연도	2017년				2018년			
	9	10	11	12	1	2	3	4
가격	50.0	51.0	52.0	53.0	53.0	53.0	53.0	54.0
연도	2018년							
월	5	6	7	8	9	10	11	12
가격	55.0	55.0	55.0	56.0	56.0	57.0	57.0	57.0

* 자료: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 May, 2017.

- 미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원유와 가스 생산 증가로 국내 생산량이 2016년부터 2040년까지 약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로 천연가스의 생산량 위주로 성장세가 커지면서 공급증가에 따른 가격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EIU도 2017년 에너지 가격 전망에서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원유가격을 56.5 달러로 전망하였고, 천연가스 가격도 수요 증가에 따라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⁶⁾

5) EIA, "Short-Term Energy and Summer Fuels Outlook," May, 2017.

6) EIU, "Industries in 2017," p. 27.

□ 원자재 가격 영향 변수

- 석유수출기구(OPEC)등 산유국의 감산합의 이행여부는 하반기 원유가격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급요인의 주요 변수
 - 2016년 11월 석유수출기구(OPEC)의 정기총회에서 회원국들은 2017년 상반기 원유생산량을 일일 120만 배럴을 줄인 3,250만 배럴 생산에 합의하였으며 비OPEC 회원국들도 일일 55만8천 배럴 감산에 합의
 - * 당시 석유수출 국가들의 전반적인 합의 이행은 2017년 상반기 국제유가가 강세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
 - 이어 2017년 11월 OPEC 국가들은 감산여부 연장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어 결정여부에 따라 향후 원유가격 향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 * 다만, 2017년 7월부터 회원국들의 감산 합의 이행률이 국가별로 크게 차이가 나 11월 합의여부 및 이행준수가 원유가격에 영향을 줄 것
-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개선 여부는 수요 측면에서 원유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평가되며 글로벌 경기는 대체로 회복국면에 진입
 -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7년 전세계 경제성장률은 3.5%, 2018년은 3.6%에 달해 견조한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⁷⁾
 - * 2016년은 3.2% 성장
 - 선진국의 경우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종료로 인해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신흥국의 경제성장은 2016년 4.3%에 이어 2017년 4.6%, 2018년에는 4.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회복에 따른 원자재 수요가 확대될 전망

7)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17.

Ⅲ

경기회복의 긍정적 요인

1

유라시아 외부 요인

□ 중앙아시아와 이란의 경제협력 인프라 개선

○ ‘남-북 국제철도(North-South Transnational Railway)’의 개통 이래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아시아와 이란을 중심으로 중동을 연결하는 물류운송루트 개선

- 카자흐스탄의 우젠(Uzen)-투르크메니스탄의 베레켓(Bereket)·에트렉(Etrek)-이란의 고르잔(Gorgan) 등 3개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철도 루트로 2014년 12월 최종 개통

- 총 길이 925km의 철도루트로 각국 정부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등의 자금지원을 기반으로 건설되었고 同철도의 개통을 통해 3국간 물류운송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

- 남-북 운송회랑 건설의 회원에는 러시아·이란·인도 등의 3개국 이외에 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주변 1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

○ 同 철도는 단순히 3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의 다양한 철도 루트의 한 축을 담당하며 남-북 루트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중요

- 남-북 국제철도는 기존에 존재하는 각국의 동-서 철도운송 루트를 남-북으로 연결하여 각 국가의 내부 운송체계와 국가 간 운송연결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카자흐스탄은 투르크메니스탄을 통해 이란으로 연결

* 철도가 투르크메니스탄을 지나가는 도시는 베레켓(Bereket)과 에트렉(Etrek)이라는 2 곳으로 이 중에서 베레켓은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연결하는 트랜스 카스피안 철도(Trans Caspian Railway)와 연결되는 도시

- 지난 2002년 러시아·이란·인도 등 3개국이 합의한 ‘남-북 운송회랑(North-South Transport Corridor)’ 추진으로 인도의 뭄바이-이란의 반다르아바스-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복합운송루트가 추진됨에 따라 이 루트와 연결되는 남-북 국제철도의 활용성 확대
- 카자흐스탄은 이란과는 안정적인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의 對이란 수출은 2013년 약 5억 9,300만 달러 → 2014년 9억 8,200만 달러 → 2015년 7억 3,500만 달러를 기록
- 특히 카자흐스탄은 남-북 국제철도 개통을 통해 주요 수출품인 밀의 대외 시장루트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同 국제철도의 개통으로 카자흐스탄의 對이란 밀수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기대

〈 그림 1 〉 남-북 국제철도(North-South Transnational Railway) 운송 루트



* 자료: Rail Turkey

- 남-북 국제철도의 활성화로 카자흐스탄은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하여 이란

을 연결하는 남부 루트를 통해 중동지역과의 교역을 확대하고 전통적으로 발전이 더딘 카자흐스탄 남부지방 경제성장에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것

- * 남부지방인 타라즈(Taraz), 침켄트(Chimkent) 등의 도시는 인구가 밀집해 있으나 산업발전 등이 더디게 이루어져 타 지역에 비해 경제성장이 더딤.

□ 일대일로 연계와 중국투자 확대

○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포럼’이 지난 5월 14-15일 양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29개국 정상과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을 포함한 130여 개국, 1,500여 명의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

- 유라시아 국가로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몽골 등의 정상이 참석

- * 한국도 대선 후 중국정부로부터 초청을 받고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이끄는 대표단이 포럼에 참석

- 개막 첫날인 14일에는 개막식에 이어 시진핑 중국주석의 개막 연설이 있었으며 이어 5개 주제의 회의가 개최되었고, 15일에는 시 주석이 주도하는 두 차례의 정상원탁회의가 열린 후 폐막 기자회견과 함께 종료

- 개막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현재 인류는 큰 변화와 조정의 시대를 맞고 있으며 일대일로 계획을 통해 모든 국가들이 평화와 번영, 개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

- 금번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통해 중국이 새롭게 제시한 사안은 일대일로 관련한 자금의 추가 투입으로 약 8,500억 위안(한화 약 137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기존 자금계획에 더해 신규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임.

- * 신규투입되는 자금은 ▲실크로드 펀드에 1,000억 위안 추가투자, ▲중국 금융기관을 통한 주변국가에 대한 대출지원 등이 포함

-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을 포함한 유라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기대하는 것은 몇 가지 사안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음.⁸⁾
 - 첫째는 가장 큰 목적으로 경제적인 부양효과이며 둘째는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유라시아 국가들에게 중국은 지역 내 러시아와 함께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 대부분의 유라시아 국가들이 탈자원 산업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자본과 산업기술을 통한 인프라 개발 및 연계된 산업화는 각국에 긍정적으로 작용
 - * 특히 유라시아 국가들이 기대하고 있는 점은 경제특구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와 산업인프라 구축임.
 - 우즈베키스탄의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 역시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는데, 특히 ‘중국-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철도’ 건설에서 키르기스스탄 구간의 진척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同 철도 건설이 연계되고 진척되기를 희망
 - 일대일로 정책의 실현을 통해 중국의 對우즈베키스탄 투자가 늘어난다면,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경제 의존성을 중국을 통해 분산시킬 수 있고,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점 기대

8) 반면, 중국정부의 관점에서 금번 개최된 일대일로 정상포럼은 2013년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지난 3년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분야별 협력과제와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여 주변국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음. 중국정부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관련국가에 지난 3년간 약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고, 20개국에 56개의 경제협력지대를 건설하였으며 약 18만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였음. 시진핑 주석은 연설문가운데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카자흐스탄의 누를리줄(Nurly Zhol) 프로젝트와 일대일로 계획이 국가발전을 위한 지향점이 같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대일로를 통한 상호 호혜와 상생을 강조하였음. 또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성과를 부각시켜 중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한 대외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합목적성 부여하였음.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주요 협력대상국이 되는 유라시아의 경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는 중국의 국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인 국가들이며 이들은 항상 중국에 의한 자국이익의 침해에 대해 우려가 큰 입장에서 포럼을 통한 중국의 상호 호혜 강조는 同 프로젝트 추진이 중국의 야욕에 의한 것이 아닌 주변국과의 공동의 이익추구라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의 일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음. Work Together to Build the Silk Road Economic Belt and Th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17-05/14/c_136282982.htm, 검색일: 2017. 5. 23)

-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국은 우즈베키스탄을 통한 천연가스 수입 루트를 확대하고 있어 우즈베키스탄 경기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

〈 그림 2 〉 우즈베키스탄을 경유하는 중국 가스파이프라인



* 자료: Oilprice.com

- 현재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총 3기를 운영하고 있으며(line A·B·C) 4기(line D)를 건설 중에 있음.
 - 총 3기의 가스관을 통해 중국은 연간 약 550억 m^3 의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는데, 제 4기 파이프라인이 완공되면 추가적으로 300억 m^3 의 천연가스가 중국으로 수출될 것임.
 - * 현재 3기의 천연가스는 중국 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20%를 공급하고 있는데 4기 파이프라인 완공이후 중국의 중앙아시아 천연가스 의존은 확대될 것이며 우즈베키스탄으로서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에 따른 통과수입(transit fee)을 기대
-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카자흐스탄은 큰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국가로 인프라 개발을 통한 국가의 균형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

- 카자흐스탄은 누를리졸(Nurly Zhol)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교통·운송 인프라스트럭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물류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입장
- 이미 카자흐스탄과 중국은 에너지 자원개발 및 운송에서 오랜 기간 협력해 왔으며 카자흐스탄으로서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중국의 활용이 필요한 입장으로 일대일로는 좋은 협력방안이 될 수 있음.
 - *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운송인프라 프로젝트와 산업협력에서 중국이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
- 카자흐스탄은 중국과 다년간의 에너지 분야 협력에 이어 인프라 개발, 산업 협력 등으로 협력의 범위를 크게 확대해 나가는 입장이며 최근 중국에 대한 내부적인 경계나 반감도 수그러드는 등 일대일로 협력에서 중국과 긍정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카자흐스탄은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브릿지(bridge)’ 국가로서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관건은 얼마나 많은 물동량이 기존 해상을 통한 중국의 대유럽 수출물량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임.

〈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지난 경과 〉

-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구체화된 것은 지난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이 카자흐스탄 순방 당시 발표한 ‘실�크로드 경제권(silk road economic belt)’ 구상을 통해서이며 이후 중국정부는 대외적으로 동 프로젝트를 공식화하고 발전시킴.
- 당시 시진핑 중국주석은 실�크로드 경제권을 통한 경제협력과제로 다음의 다섯 가지 사안을 제시함; ①정책협의 강화 ②도로 등 운송여건 개선 ③무역장벽 완화 ④통화협력 확대 ⑤인적교류 증대 등
- 시 주석은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 의회연설에서 ‘해상 실�크로드(maritime silk road)’ 건설을 제시하였고, 2015년 3월 일대일로 종합정책 문건을 공포하면서 일대일로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현실화
-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중국정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과 ▲실�크로드 펀드(Silk Road Fund)라는 두 개의 축을 통해 재원운용과 투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 AIIB는 2015년 6월 1,000억 달러의 자본금으로 설립되었으며 중국은 25%의 의결권을 가진 최대 지분보유국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
 - * 실�크로드 펀드는 2014년 12월 400억 달러의 재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유라시아 내 각종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집행

2 유라시아 내부 요인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외연확대 가능성

- 유라시아경제연합(이하 EAEU) 출범 2년이 지나 최근 회원국 간 협력강화 및 외연확대 활동이 주목받고 있으며 협력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
- 특히, EAEU 내부적으로는 2017년부터 적용되는 신(新)관세법이 채택되어 경제협력이 심화되고 있으며 EAEU의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자유

무역지대 창설 등 외연확장에 대한 활발한 논의 전개는 현재 추동력을 상실한 유럽연합(EU)의 상황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지난 2016년 12월 26일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한 EAEU 4개(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아르메니아) 회원국 정상은 지난 2년간 회원국 간 수출입을 규정하던 관세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관세법 도입에 합의

*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외국계 합작회사의 설립』에 관한 조항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본 조항을 제외한 다른 조항에는 합의⁹⁾

- 새로 도입되는 관세법의 특징은 ▲IT 기반의 관세시스템 도입으로 통관을 위한 서류작업 최소화, ▲사전 통관 제도 등 회원국 간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 오퍼레이터의 자격에 대한 등급제도 도입으로 등급에 따라 통관 시 혜택 부여 여부 차별화 등

○ 유라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EAEU 추가 가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옴서버 국가 및 FTA 대상국 확대 등 활발한 대외협력 추진 중

- 2017년 1월 17일 몰도바의 도돈(Igor Dodon)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모스크바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몰도바는 “EU와 경제협정을 맺었으나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러시아 시장을 잃었다”며 “몰도바는 EU와 맺은 경제협정을 폐기하고 러시아가 이끄는 경제연합체(EAEU)에 가입할 수 있다”고 언급¹⁰⁾

- 현재 EAEU는 세르비아, 이스라엘 및 중국과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EAEU 각국 대통령은 이란, 이집트, 인도,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과 EAEU간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제안서를 준비하는 데 합의¹¹⁾

9) ТАСС, “Лидеры стран ЕвразЭС подписали новую редакцию Таможенного кодекса Союза,” 26, Декабря, 2016.

10) Financial Times, “Moldova leader vows to scrap EU trade deal for Moscow-led bloc,” 18, Jan. 2017.

11) Russia & India Report, “EAEU to start free trade zone talks with India, Iran, and

- 우즈베키스탄은 국가수반 교체이후 기본적인 경제정책 변화는 없으나 친러 노선으로의 정책전환 및 EAEU 가입을 통한 경기여건 개선가능성 있음.
- 유라시아 지역에서 EAEU 회원국 가입의 가능성을 가진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으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친러파이며 우즈베키스탄의 EAEU 가입에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점진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對러시아 의존 〉

- 우즈베키스탄은 대외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경제운용원칙을 채택하면서 대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구조 구축을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로 러시아의존 큼.
 - 지난 2014-2016년의 러시아 경기침체기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음.
 - 첫째는 러시아에 노동이주한 근로자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송금하는 금액이 크게 감소하여 외화수입이 큰 폭으로 줄었으며 국내환율에 악영향
 -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다수의 불법 노동이주와 송금수입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기침체 이전까지 노동이주 인구는 비공식적으로 약 100만 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둘째는 자동차 등 일부 기계류 수출의 對러시아 수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관련 산업이 침체를 겪고 있으며 이는 주로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현재까지는 전임 카리모프 대통령의 경제운용방향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면서 중립적인 정책을 펴고 있으나 EAEU 가입을 통해 러시아시장에 대한 수출확대를 단기적으로

Egypt.” 27, Dec. 2016.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전환의 가능성 있음.

-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외환자유화 정책이 대외개방성 확대의 신호탄의 성격을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대외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지난 2015년 EAEU 가입국인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산 제품의 자국유입으로 인해 곤욕을 겪은 사례가 있어 우즈베키스탄이 쉽게 EAEU 가입에 나서기 어려울 수 있음.

□ 카자흐스탄: 카샤간(Kashagan) 유전의 본격개발과 증산

- 카샤간 유전은 전 세계적으로 최근 30년간 발견된 유전 중 가장 큰 초대형 규모의 유전으로 카스피해(Caspian Sea) 북부 해상에 위치
 - 카샤간 유전은 2000년에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이탈리아계 원유개발기업인 에니(Eni)社를 중심으로 2001년부터 탐사작업 진행
 - 유전의 원유 총 매장량은 90-130억 배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심해 4400m에 위치한 유전개발의 기술적인 난관, 개발환경과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양산이 늦춰짐.
 - * 카스피해는 겨울철 기온이 영하 35-40°C에 달해 연중 약 6개월간은 원활한 작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해에 위치하고 있어 기술적인 문제가 상시발생
- 카샤간 유전의 지분은 카자흐스탄 정부와 다수의 서구 기업들이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으나 개발에서 카자흐스탄 정부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
 - 카샤간 유전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지분이 낮은 단계에 머물렀으나 2000년대 중반이후 자원민족주의의 영향으로 정부 지분 및 영향력 강화

〈 표 11 〉 카샤간 유전 지분율: 2017년 8월 기준

(단위: %)

사업 주체	지분율
KazMunayGaz(카자흐스탄 국영기업)	16.88
Royal Dutch Shell	16.81
Eni	16.81
Total S.A.	16.81
ExxonMobile	16.81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8.44
Inpex	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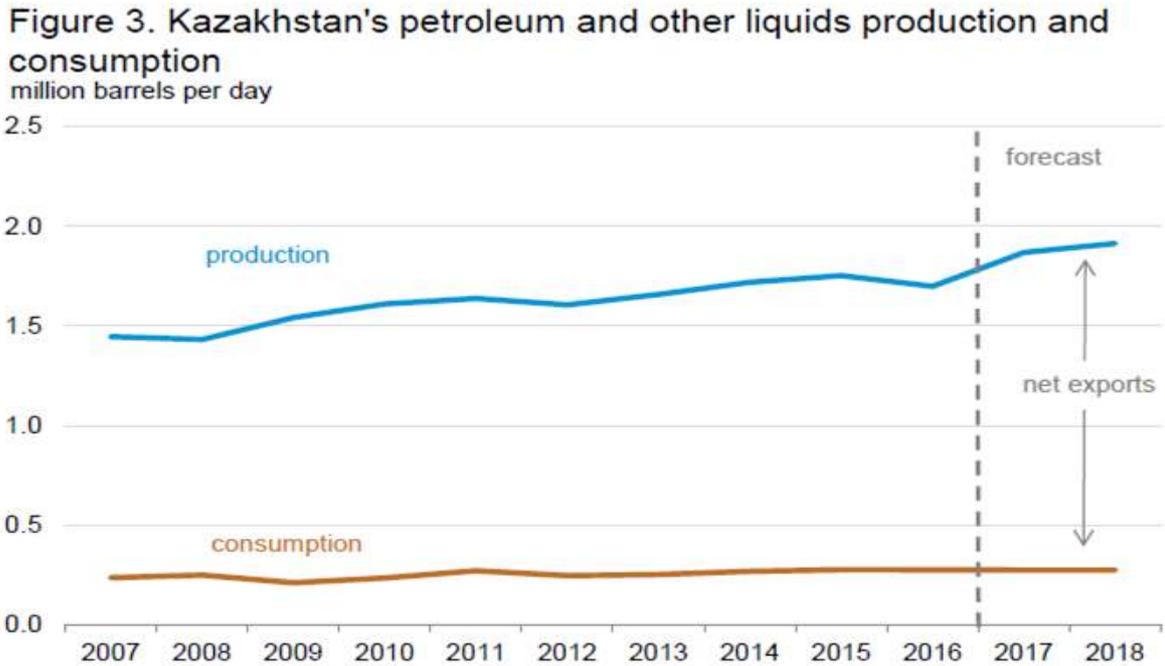
* 자료: North Caspian Operating Company

- 카자흐스탄 국영기업인 카즈무나이가즈社は 카샤간 유전 운영사인 North Caspian Operating Co.의 지분율 기준 8.33%에서 2008년 16.81%까지 확대한 데 이어, 2013년에는 16.88%로 높이면서 최대주주로 영향력 확대
 - * 카자흐스탄 의회는 원유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2007년, 외국석유기업이 국가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정부직권으로 해당기업지분을 제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법안 통과

○ 카샤간 유전은 2016년 처음으로 상업생산을 개시한 이래 2017년부터 생산량을 확대하는 등 본격적으로 원유생산 증가와 수출이 증가

- 同 유전의 첫 상업생산은 2016년 10월 최초로 이루어졌으며 CPC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출 개시
 - * 이후 기술적인 문제로 생산이 중단되었다가 2017년 1월부터 재생산 시작
- 현재 1일 생산량은 약 10만 배럴에 그치고 있으나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7년 연말까지 약 37만 배럴로 생산량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며 계획대로 생산이 확대되면 카자흐스탄의 원유수출증가에 크게 기여

〈 그림 3 〉 카자흐스탄의 원유생산과 소비: 연도별 추이



* 자료: EIA Country Analysis Brief: Kazakhstan 2017

- 카자흐스탄의 원유생산량은 2016년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7년 카샤간 유전의 생산 확대에 힘입어 원유생산량과 순수출이 단기간 내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카샤간 유전이외에도 카자흐스탄 3대 유전중 하나인 텡기즈(Tengiz) 유전의 생산량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카샤간 증산으로 인한 원유수출확대는 카자흐스탄의 수출증가와 이에 따른 국내경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카자흐스탄: 아스타나(Astana) 엑스포 개최

○ 2017년 6월부터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아스타나에서 CIS 최초의 엑스포가 진행되었으며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경제적 효과 기대

- 同 행사는 2017년 6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아스타

나에서 개최된 ‘인정 엑스포(recognized exposition)*’ 로 권위 있는 박람회

* 엑스포는 인정 엑스포와 등록 엑스포(registered exposition)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개최기한과 규모, 주제 등이 제한된 엑스포

- 상기 기간 동안 아스타나에서 개최되는 엑스포는 CIS 최초의 엑스포로서 ‘미래 에너지(Future Energy)’를 주제로 삼았음.

○ 카자흐스탄 정부는 엑스포 개최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

- 주최 측은 행사기간 동안 약 5백만 명의 관람객이 왔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은 내국인들이며 일부분은 외국인들이 차지한 것으로 집계

* 아스타나시의 인구는 약 70만 명에 불과하여 관광객 집중으로 인한 지역경기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 기대

- 행사 기간 동안의 아스타나 관람객 증가로 인한 여행, 숙박, 음식료 등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

< 그림 4 > 아스타나 엑스포장 전경



* 자료: The News Market

- 카자흐스탄 정부는 대외적으로도 엑스포 유치를 통한 향후 카자흐스탄과 아스타나의 인지도 상승 등을 기대하고 있음.
- * 2011년 동계아시안게임, 201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게임 유치 등 카자흐스탄 정부는 최근 자국의 대외이미지 향상과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

IV

현지기업 체감경기와 시사점

1

러시아 현지기업 체감경기: 기업인터뷰를 중심으로¹²⁾

□ 러시아 체감 경기와 기업대응

- 긍정적인 경제지표와 달리 기업이 체감하는 러시아 경기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루블화 평가절하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지출여력이 감소
- 현 상황에서 향후 경기가 급격히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러시아 경기는 지표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지에서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경기는 아직까지 크게 나아진 점이 없음.

- 수년간 지속된 저유가 상황과 서방의 對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해 러시아 경제상황이 수년간 침체를 겪고 있음.
- 일각에서는 서방 경제제재의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하나, 일부 중요 서방산 제품수입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30% 이상은 된다고 판단
- 작년부터 유가 상승 등 경기호재 요인이 있으나 지표와는 달리 실제로는 경기침체 이전에 비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화된 것이 확연히 눈에 띈.
- 2014년 국제유가 하락과 서방의 경제제재 이후 약 3년간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으며 다만 2017년은 2016년에 비해 미세하나마 경기개선 기대감 상존
 - * 많은 기업인들은 2015-2017년에 경기가 바닥을 친 것으로 판단
- 가장 큰 원인은 루블화 평가절하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루블화 평가절

12) 본 내용은 2017년 6월 26~30일의 기간 동안 모스크바 현지 기업들과의 인터뷰 및 카자흐스탄 기업들과의 전화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하로 2015-2016년 물가가 급격히 올랐고, 특히 식료품 등 필수품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필수품 이외 품목에 대한 지출을 줄였음.

- 2018년 대선까지 경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정부 관계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정부는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으로 모든 기업의 재산세를 인상하여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 EAEU 확대 등으로 CIS 시장에서 인구유입이 증가하여 러시아내 거주 인구가 약 2백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불법인구 단속을 통해 노동인구의 지나친 유입을 정부에서 차단하고 있는 양상
-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기업들은 비용을 최소로 감축하고 호황기를 대비하는 전략을 펴고 있음.
 - 모스크바에서는 고급식당을 중심으로 요식업 분야의 매출도 줄고 있는데, 2016년에만 모스크바 내 대형 레스토랑 약 50여개가 폐업하는 등 소비자들의 지출 감소
 - 일부에서는 유가 상승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상공인들이 느끼기에는 이러한 경기침체가 최소 2~3년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러시아 경기 특성상 수년의 불황기를 지나면 호황기에는 매출이 크게 상승할 수 있으므로 불황기에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생존하는 것이 중요
 - 현지의 많은 기업들은 경기불황이라는 이유로 인력감축이나 해고를 하기 보다는 다른 비용과 지출을 줄이면서 불황기를 견뎌내는 데 집중
 - 정부비중이 큰 러시아 경제 특성상 정부발주 프로젝트 등이 늘어나 경기 개선에 도움을 주어야 하나 정부도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공 프로젝트를 감축하고 있는 상황

□ 주요 산업 현황

- 도소매업, 가전 등의 소비재 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음.
- 수입대체화 정책의 영향으로 유제품 등 일부산업에서 자국산 제품 점유확대
-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중국산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양극화 확대

○ 유통, 도·소매 업종은 소비자 구매력 약화에 따라 불황 지속

- 러시아 소매시장 매출은 전년대비 약 -2.5%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부진이 전반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

* 러시아 시장 전체로 보면 소매시장이 유럽에서 가장 큰 수준이나 시장 부진은 지속

- 모스크바에만 대형 쇼핑몰이 약 120개 정도이며 대부분이 2010-2011년도 경기 호황기에 지어진 것으로 현재 경기불황을 맞아 많은 쇼핑몰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과거 호황기에 소매 브랜드들이 쇼핑몰에 입점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현재는 쇼핑몰들이 파급력 있는 브랜드를 입점시키기 위해 힘쓰면서 시장상황이 역전

- 특히 환율상승이 결정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환율이 경제위기 이전의 약 2배 정도에 머물면서 수입품에 대한 구매력이 현저히 감소

○ 가전/IT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재 시장도 불황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온라인 판매가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

- 2015년은 가전/IT 제품 판매에서 가장 실적이 좋지 않았던 해로 기록될 정도로 전반적인 매출이 좋지 않았음.

- 2017년도 상반기도 대부분의 제품군에서 매출실적은 전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음.
 - 시장 내 경쟁격화에 따라 영업이익도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상황이 2000년대 초중반에 비해 좋지 않음.
 - 전반적으로 수요가 침체되어 당분간 큰 폭의 매출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나 기회요인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될 수 있음.
 - 매출추이로 볼 때 매장매출보다 온라인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러시아 온라인 시장의 환경개선에 기인
- 제조업은 수입대체화 정책의 큰 영향은 없으나 유제품 부문에서는 러시아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
- 러시아 정부가 수 년 전부터 수입대체화 전략을 펴고 있으나 제조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은 해당분야에서 대체할만한 러시아 기업이 없기 때문
 - * 과거 시장개방 초기에는 일부 제조업의 경우 러시아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이 다수 있었으나 이미 시장에서 도태된 경우가 많으며 그 시장은 중국산등 저가 외국산 제품이 점유
 - 수입대체화 정책이 장기적으로 러시아에서 성공할 것인지는 의문으로 그동안 러시아 경제가 자원개발을 통한 성장에 지나치게 몰두해 왔으므로 산업분야의 성장은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 거의 없는 것이 사실
 - * 정부에서는 정책의 성공을 홍보하고 있으나 기업차원에서는 체감할 수 없음.
 - 러시아 수입대체화 정책은 시장에서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단순 완제품 수입이 아닌 러시아 내에 생산설비를 갖춘 기업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

- 그 예로, 러시아 내에서 제품을 조립·생산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특정 규격 이상은 관세가 부가되지 않기 때문에 완제품 수입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훨씬 유리
- 다만, 치즈, 유제품 등 일부 식료품 부문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며 러시아산이 크게 도약

□ 시장의 주요 특성

- 경기불황의 지속에 따라 러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산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확대
 - 가전시장에서 최근 중국기업의 러시아 진출이 확대되면서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나 중국산 제품은 소비자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아 단기간에 시장을 급격히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경제위기 이후에 계속 나타난 현상이지만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기존보다 가격대비 성능을 중요시하는 성향이 두드러지게 강화되고 있음.
 - * 이러한 경향이 반영된 것이 중국산 제품의 매출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중국산 제품의 판매확대는 결국 기존에 시장을 지배하던 브랜드가 약화되고 ‘B급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 확산이라는 현상으로 귀결되고 있음.
- 저가 시장의 확대와 함께 중가제품 시장이 위축되면서 시장 양극화 지속
 - 소비자 트렌드가 가격대비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복잡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제품보다는 단순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 인기
 - 저가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도 프리미엄 제품군의 매출은 대체로 위축되

지 않고 있으며 시장규모 유지

- 대표적인 러시아 소매유통인 '쭈(Chum)'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은 약 22%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으나 매출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저가 정책 지속으로 영업이익은 -15%에 이르고 있음

* 쭈는 수입품의 직매 비중이 80%에 이를 정도로 직매 비중이 높음.

- 의류시장에서 ZARA, Uniqlo 등의 SPA 브랜드들은 매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매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음식료 부문에서는 Mcdonald 등의 패스트푸드 체인들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

2 기회 요인과 시사점

□ 기회 시장

○ 헬스케어 분야

- 러시아 헬스케어 시장은 러시아인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연평균 약 3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최근에 A사가 대형 쇼핑몰에서 진행하였던 무료 체지방 진단 행사에는 수백명의 인원이 몰려 러시아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음.
- 러시아에는 개인 건강측정기기를 판매하는 기업이 일본 1개 기업과 A사의 2곳에 불과하며 아직 시장 초기단계임.
- 그러나 A사는 일본사에 비해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뛰어나 향후 시장점유는 앞서갈 것으로 예상

- 다만, 시장확대의 걸림돌은 제품의 가격 단가가 약 3~4천 달러 수준으로 개인이 구매하기에는 높아, 병원이나 체육시설 등의 법인 대상 영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러시아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나 건강분야에서 수요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므로 매출증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 화장품·미용 분야

-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은 러시아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한국산 화장품의 시장 진출에 대한 기회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음.
- 경기가 좋지 않지만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시장에 진출하고 매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 현재 불황이라 매출이 크게 늘기는 어려우나 향후 호황기에는 매출이 급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므로 호황기를 대비하는 전략 필요
- 경제제재 등이 이어지면서 유럽산에 비해 가격대비 성능이 좋은 한국산 화장품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러시아 시장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과 홍보가 중요
- 러시아 내 화장품 판매사인 B사의 성공요인은 단순히 한국산 제품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인들의 피부에 적합하게 제품 성분과 구성을 다양화한 것이 주효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음.
- B사는 시장에 적합한 꾸준한 제품개발로 타 제품과 차별화하고 시장에서 장기간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최근 한국산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등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진출할 경우 향후 브랜드 인지

도 측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의료·보건 분야는 한국기업 진출 유망분야이며 구체적으로는 미용분야가 전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국산 의료 시술장비나 미용기구 등은 러시아 현지에서 수요가 있음.

□ 시사점

-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지역의 경기개선이 지표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흡한 수준
 - 러시아 등의 유라시아 주요국 경제현황은 2014년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 이후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지표상 개선되는 기조를 보이고 있음.
 - 하지만, 현지에서 기업들이 체감하기에 경기회복의 속도는 빠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시장에서 기업이 체감할 정도의 경기회복에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러시아를 중심으로 많은 현지 기업들은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강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음.
 - 하지만 국제원자재 가격의 흐름과 전망 및 기타 대내외 요인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유라시아 국가들의 경기는 후퇴보다는 개선의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큼.

▶ 기업은 지표상으로 보이는 경기 개선세를 과신하여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를 하기 보다는 산업별 경기흐름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전략 수립 필요

- 경기침체에 있는 유라시아 국가들의 소비시장은 대체로 하향소비 성향 및 시장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경기침체기 가운데 있는 러시아 시장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필자는 ‘하향소비(trade-down)’와 소비양극화를 지적한 바 있음.¹³⁾
- 현재 러시아 소비시장은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자들의 하향소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이러한 특징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사례
- 유라시아 국가 내에서 중국산 제품의 이미지가 아직까지 한국산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점유율이 장기적으로 확대될 전망
-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시장양극화 현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가 시장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으며 중가 시장이 타격

▶ 기업은 가격이나 품질에 있어서 포지셔닝이 불분명한 제품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수요가 확대되는 저가 제품군이나 경기 영향을 적게 타는 고가 제품군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시장 진출에 수월

- 경기침체기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각 국가별로 경기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 느리지만 경기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예정으로 있으며 중앙아시아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철도인프라 개선은 경기회복에 긍정적 역할 기대
- 러시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공고화되고 있

13) 박지원 외. “경기침체기 러시아의 소비트렌드 변화와 시사점,” KOTRA *Global Strategy Report 16-001*, 2016. pp. 1-55.

으며 카자흐스탄의 경우 카샤간 유전의 생산확대 및 아스타나 엑스포 유치 등의 요인은 내수 활성화에 도움

- 점진적 경기회복 국면에서도 기회요인이 될 수 있는 화장품, 의료 기기 등의 틈새시장 진출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

▶ 유라시아 국가 중에서도 카자흐스탄의 경기회복이 가장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제조업화 추진과정에서도 한국과의 경험여지가 가장 높음.

< 참고 문헌 >

- 문헌 자료 -

박지원 외. (2016) “경기침체기 러시아의 소비트렌드 변화와 시사점.” KOTRA Global Strategy Report 16-001.

Bradshaw, M. and Conolly, R. (2016) “Russia’s Natural Resources in the World Economy: history, review and reassessment.”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Vol. 57, Issue 6.

Central Bank of Russia. (2017) Monetary Policy Report No.1, March.

Economic Intelligence Unit. (2017) Country Report–Russia, March.

Economic Intelligence Unit. (2017) Country Report–Kazakhstan, March.

EIA. (2017) Country Analysis Brief: Kazakhstan 2017

EIA. (2017) Short Term Energy Outlook. May.

EIA, (2017) Short–Term Energy and Summer Fuels Outlook. May.

EIU. “Industries in 2017.”

European Parliament. (2016) “Post–Karimov Uzbekistan: Business as Usual.” *At a Glance*.

IMF. (2016) “World Economic Outlook: Subdued Demand – Symptoms and Remedies.”

IMF. (2017)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17.

MacDonald, S. (2012) “Economic Policy and Cotton in Uzbekistan.” USDA, A Report from the Economic Research Service.

World Bank. (2016) “Kazakhstan at a Glance: Most Recent Values.”

- 인터넷 자료 -

Central Bank of Russia, Basic Derived Indicators of Ruble’s Exchange Rate Dynamics

North Caspian Operating Company 홈페이지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 Aug. 2017.

Financial Times, “Moldova leader vows to scrap EU trade deal for Moscow–led bloc,” 18, Jan. 2017. (<https://www.ft.com/content/52651bb6-dcd4-11e6-86ac-f253db7791c6>, 검색일: 2017.5.22)

Russia & India Report, “EAEU to start free trade zone talks with India, Iran, and Egypt,” 27, Dec. 2016. (<http://in.rbth.com/economics/business/2016/12/>

27/eaeu-to-start-free-trade-zonetalks-with-india-iran-and-egypt_669376,
검색일: 2017.5.20.)

The President of Kazakhstan Nursultan Nazarbayev's Address to the Nation of
Kazakhstan, Jan. 31, 2017, (<http://www.akorda.kz>, 검색일: 2017년 7월 10일)
Work Together to Build the Silk Road Economic Belt and The 21st Century Mari
-time Silk Road,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17-05/14/c_136282982.htm, 검색일: 2017. 5. 23)

ТАСС, “Лидеры стран ЕвразЭС подписали новую редакцию Таможенного
кодекса Союза,” 26, Декабря, 2016. (<http://tass.ru/ekonomika/390775-9>, 검색일: 2017.6.22)



작성자

◆ 글로벌전략지원단 박지원



Global Strategy Report 17-011

유라시아 주요 국가의 경제현황과
경기개선요인

발행인 | 김재홍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7년 10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화 |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의처 | 글로벌전략지원단
(02-3460-7726)

ISBN : 979-11-6097-378-5 (93320)
979-11-6097-379-2 (95320) (PDF)

Copyright © 2017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G l o b a l S t r a t e g y R e p o r t

명목만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